



Issue Repor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및 CEO 메시지 분석

-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심 -

20210811

안상희 책임투자 센터장
(02-769-3020)

최지수 보조연구원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음.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 중심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거나, 해외 투자자의 지분이 적지 않은 수준인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경향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추이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CEO 메시지의 키워드를 분석하여 상장기업이 중요시하는 ESG경영의 키워드를 살펴 보았음.

1)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 2021년 8월 6일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은 총 94개 社로, 이는 지난 2019년 기준 106개社의 88.7%에 육박한 수준으로 확대됨.
- 특히,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전년도 57건보다 많은 61건을 기록함.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작년에 발간하였으나, 최근 기준(2021.08.06)까지 아직 발간하지 않고 있는 9개 社를 고려하여 최소 70개 社로, 전년 대비 22.8%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됨.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분석

- 주요 6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CEO 메시지는 그룹별 주력 비즈니스에 따라 키워드가 차별화되고 있음. 삼성 및 현대차그룹 소속 상장기업 CEO 메시지 키워드를 비교했을 때, 현대차그룹의 키워드는 <글로벌>, <미래>, 삼성그룹은 <경영>, <ESG> 등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임.
- 4대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는, 과거 <디지털>, <고객 중심>에서 최근에는 금융지주에서 <탈석탄 금융 선언>, <ESG채권> 등 <기후변화> 관련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음. 특히,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트렌드에 민감한 구조를 가짐.

3) 제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발간 등과 관련하여 'ESG위상'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필요

- 2025년 이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일부 상장기업(자산 2조원 이상)에게 의무공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며, 동 보고서가 상장기업 비재무정보의 공개 등 책임투자에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ESG 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I.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개 채널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현황

1)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등 ESG 정보공개 채널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기업 비재무정보공개 채널의 단순화 과정 필요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에서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오던 재무성과 이외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ESG의 정보공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상장기업 중 수출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거나, 지분 구조상 해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비재무정보의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글로벌 ESG투자에 대한 대응전략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1에 의하면, 최근 글로벌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상장기업의 ESG 등 비재무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공적 연기금 중심)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현재 국내 상장기업의 비재무정보공개 채널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의무화(자산 2조원 이상 기업)된 지배구조보고서는 기존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공시하는 것이며,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연차보고서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환경에 영향이 크게 미치는 기업에게 관련된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왔지만,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환경 관련 정보를 의무 공개(환경정보시스템)하도록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은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표1.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등 ESG 정보공개 채널

구분	유형	의무/자율	관련 규정 및 내용
정보공개	사업보고서	의무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의무 공시 -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규정(제33장_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에 따라 회계정책으로 채택 - 환경: 환경 관련 정부규제 준수 사항, 환경개선 설비에 대한 자본지출 계획,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 사회: 고용 현황 및 임원보수, 양성평등
	지배구조보고서	의무/자율	- 의무: 2019년 이후 자산 2조원 이상, 2022년 이후 자산 1조원 이상, 2024년 이후 0.5조원 이상, 2026년 0.5조원 미만 기업 대상 - 자율: 자율적으로 공시 가능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의무	- 자율: 2020년 중 거래소에 보고서 공시한 40개사를 포함한 총 109건 - 의무: 1단계; 자율공시 2단계(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의무 3단계(2030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의무
	거래소 공시	의무	-환경: 온실가스 배출권의 취득·처분 등 녹색경영정보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녹색기업 지정은 수시공시(거래소 공시) -사회: 가족친화경영정보, 노사관계
	개별법	의무	-환경: 1) 환경보호, 자원절약,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을 위한 목표 및 주요 활동계획, 성과에 관한 사항 등 공개(환경정보시스템 공시) 2) 2020년 이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에너지 총 사용량 ▲환경사고 발생, 배출부과금 체납 등 환경법규 위반 현황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용수 사용량 및 재활용 실적 ▲녹색경영 관련 전담 조직 및 환경안전사고 대응체계 등을 의무 공시(환경정보시스템) -사회: 고용형태(고용안정정보망 공시), 어린이집설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시)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ESG연구소 정리

또한, 그동안 자율로 되어 있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는 자산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게는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 시장 참여자가 상장기업의 비재무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수월해지기에, 책임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표1에 있는 것처럼 상장기업의 정보공개 채널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은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 입장을 고려했을 때 채널 단순화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주요 대규모기업집단(이하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및 보고서 중 대표이사(이하 CEO) 인사말의 메시지 키워드를 분석을 통해 기업들이 중심 이슈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2) 주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 2021년 최근까지 상장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실적 94건은 작년의 88.7%에 육박

표2에 따르면, 주요 상장기업의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지난 2019년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021년 8월 6일 현재, 보고기간 2020.01.01~2020.12.31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¹ 발간을 공시하였거나 각 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례가 총 99개社이며², 이중 상장기업은 총 94개社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상장기업 106개社의 85.8%에 육박한 수준으로, 지난해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올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삼성엔지니어링, SK바이오사이언스, LG생활건강 등의 기업을 고려하면 연내에 작년 건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년초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2021.01.14)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2025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의무화시킨다’는 로드맵, 그리고 최근 대두된 ESG경영 등 지속가능경영의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이미 작년도 57건보다 많은 61건을 기록하고 있다. 동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작년에 발간하였으나, 최근 기준(2021.08.06)까지 아직 발간하지 않고 있는 9개社를 고려하면 최소 70개社로, 전년 대비 22.8%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표2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확정된 기업 이외 2019년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 중 아직 발간 일정이 잡히지 않은 32개社를 합산하면 총 최소 126개社로 전년도(106개社) 대비 18.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가 예상되는 기업군은 1)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군에서 추가 9개社, 2) 주요 그룹 소속 이외 KOSPI 기업군에서 추가 16개社, 3)³ 기타 기업군에서 추가 7개社 등 총 32개社이다.

¹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 CSR리포트, 통합보고서 등 포함, 격년 발간을 포함 2020년 데이터가 반영된 사례 포함.

² 글로벌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번역한 화웨이, 샤오미 등의 보고서 제외

³ 기타 기업군: 30대 그룹 非소속+KOSPI 非소속 기준

표2. 2020년 상장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_2021.08.06 기준

(단위: 개 사)

구분	기업수	2020년 보고서		2019년 보고서		미공개
		개 사	비중	개 사	비중	개 사
1.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185	61	33.0%	59	31.9%	114
2. 30대 그룹 소속 이외 KOSPI 200	104	28	26.9%	39	37.5%	61
3. 기타 상장기업 (1,2에 속하지 않지만 보고서 발간 이 력이 있는 상장기업)	10	3	-	10	-	-
소계	299	92	-	108	-	-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홈페이지, 한국ESG연구소 정리

주: 30대 소속 상장기업은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대기업집단 연공시 기준

기타 상장기업은 30대 소속 및 KOSPI 200 상장기업 제외 기준

표3에 따르면,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실적(이하 '공개율')이 33.0%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대 주요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소속 상장기업들의 본 보고서 공개율은 6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최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30대 그룹 소속 185개 사 중 2019년 및 2020년 보고서를 최근까지 발간하지 않은 상장기업은 총 115개 사이다. 한편, 주요 4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60개 사 중 최근 2년간 보고서 발간이 없는 기업은 20개 사로, 미공개 비율(미공개 상장사 수/해당 상장사 수)은 33.33%를 보인다. 이는 30대 기준 미공개 비율 62.7%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표4에 의하면, 30대 그룹 이외 KOSPI 200 기업군(104개사) 중 28개 사가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개율은 26.92%를 보이나, 최근 2년간 동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비율은 공개율의 두 배 이상인 57.69%이다. 이는 주요 4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60개사 중 최근 2년간 동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은 상장사 비율이 33.33%인 것과 보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주요 그룹 소속 이외의 KOSPI 상장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주요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_2021.08.06 기준

(단위: 개 사)

	소속 상장사	2020년 보고서 공개	상장사 미공개	2020년 공개율(%)
4대 주요 기업집단	60	36	20	60.0%
10대 기업집단	105	49	51	48.6%
30대 기업집단	185	61	115	33.0%

주: 4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차, SK, LG), 10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30대 기업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한진, 두산, LS, 카카오, DL,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금호아시아나, 셀트리온,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 네이버, HDC, 효성, 하림, KCC, 넥슨, 넷마블, SM)

표4. KOSPI 200 및 기타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_2021.08.06 기준

(단위: 개 사)

	2020년 보고서 공개	상장사 미공개	총합
1. KOSPI 200 소속 상장기업 군 (30대 그룹 비소속)	26	61	104
(비율)	25.0%	58.6%	100.0%
2. 기타 소속 상장기업 군 (30대 그룹 비소속+非KOSP 200)	3	0	10
(비율)	30%	0%	100.0%

주: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홈페이지, 한국ESG연구소 정리

주: 1번 총합은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을 제외한 KOSPI 200 기업수 기준, 2번 총합은 30대 그룹 소속과 KOSPI 200 소속도 아닌 기타 상장기업 전체 기업 수 기준

표5에 따르면 2021년 8월 6일 기준,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 중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가장 많이 발간한 그룹은 11건의 삼성그룹이며, 가장 높은 공개비율(2건 이상의 발간 그룹 중)을 기록한 그룹은 75.0%의 현대차그룹으로 나타난다. 다만, 최근 2년간 동 보고서 발간한 이력이 없는 상장기업이 가장 많은 그룹은 9개사의 SK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며, 이 외에 효성그룹 8개 사, 신세계그룹 7개 사, 롯데그룹 7개 사 등으로 향후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참고로, 3개 이상의 상장 계열사가 있는 동 그룹 중에서 하림, 영풍, HDC, 셀트리온, 금호아시아나,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룹은 상장 계열사가 최근 2년간 동 보고서를 발간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룹의 주요 비즈니스가 P2P 영역에 많은 비중이 있는 신세계 그룹과 현대백화점 그룹의 경우는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5.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_2021.08.06 기준

(단위: 개 사)

		소속 상장사	2020년 보고서 공개	상장사 미공개(최근 2년간)	2020년 공개율(%)
1	삼성	16	11	4	68.7
2	현대자동차	12	9	3	75.0
3	에스케이	19	10	8	52.6
4	엘지	13	6	5	46.1
5	롯데	10	2	7	20.0
6	한화	7	3	4	42.8
7	지에스	7	2	5	28.5
8	현대중공업	6	4	2	66.6
9	신세계	7	0	7	0.0
10	씨제이	8	2	6	25.0
11	한진	5	0	4	0.0
12	두산	6	3	2	50.0
13	엘에스	7	1	6	14.3
14	카카오	3	1	2	33.3
15	DL(舊 대림)	3	1	2	33.3
16	미래에셋	3	2	1	66.6
17	현대백화점	9	0	9	0.0
18	금호아시아나	4	0	4	0.0
19	셀트리온	3	0	3	0.0
20	한국투자금융	1	0	0	0.0
21	교보생명보험	1	0	1	0.0
22	네이버	1	1	0	100.0
23	에이치디씨	4	0	4	0.0
24	효성	10	2	8	20.0
25	영풍	6	0	6	0.0
26	하림	6	0	6	0.0
27	케이씨씨	3	0	2	0.0
28	넥슨	1	0	1	0.0
29	넷마블	2	1	1	50.0
30	SM	2	0	2	0.0
	소 계	185	61	115	26.4%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홈페이지, 한국ESG연구소 정리

표6. 주요 4대 그룹 소속 상장/비상장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_2020.08.06 기준

(단위: 개 社)

	상장계열사	2019년	2020년		상장계열사	2019년	2020년
삼성	삼성전자(주)	○	○	SK	에스케이(주)	○	○
	삼성물산(주)	○	○		(주)나노엔텍	X	X
	삼성바이오로직스(주)	X	○		(주)드림어스컴퍼니	X	X
	삼성에스티아이(주)	○	○		(주)부산도시가스	X	X
	삼성전기(주)	○	○		(주)에스엠코어	X	X
	삼성중공업(주)	○	○		에스케이가스(주)	○	○
	(주)멀티캠퍼스	X	X		에스케이네트웍스(주)	○	○
	삼성에스티에스(주)	○	○		에스케이디스커버리(주)	X	X
	삼성엔지니어링(주)	○	X		에스케이디앤디(주)	X	X
	(주)에스원	X	X		에스케이렌터카(주)	X	X
	(주)제일기획	X	X		에스케이머티리얼즈(주)	X	○
	(주)호텔신라	X	X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	X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		에스케이바이오팜(주)	X	○
	삼성생명보험(주)	○	○		에스케이씨(주)	○	○
	삼성증권(주)	○	○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	○
	삼성카드(주)	X	○		에스케이케미칼(주)	○	○
현대차	현대차	○	○	LG	에스케이텔레콤(주)	○	○
	기아	○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	○
	현대제철	○	○		인크로스(주)	X	X
	현대모비스	○	○		(주)엘지	X	X
	현대건설	○	○		(주)엘지화학	○	○
	현대글로벌비스	○	○		(주)엘지하우시스	○	○
	현대위아	○	○		(주)엘지생활건강	○	X
	현대로템	X	○		엘지전자(주)	○	○
	이노션	X	X		엘지디스플레이(주)	○	○
	현대오트모터	X	○		엘지이노텍(주)	○	○
	현대비앤지스틸	X	X		(주)로보스타	X	X
	현대차증권	X	X		(주)살리콘웍스	X	X
					(주)엘지유플러스	○	○
					(주)엘지헬로비전	X	X
					(주)지투알	X	X
					(주)엘지상사	○	X

자료: DART(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홈페이지, 한국ESG연구소 정리

II.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분석

1) 주요 6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CEO 메시지

; 그룹별 주력 비즈니스별 키워드 차별화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대표이사(이하 CEO) 인사말에 나타나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ESG경영과 관련한 중점 사안을 살펴 보았다.

표4에 나타난 삼성 및 현대차 그룹 소속 상장기업 CEO의 메시지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현대차그룹의 키워드는 <글로벌>, <미래>, 삼성그룹은 <경영>, <ESG> 등에 집중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 양산 성공 이후 친환경차 전환을 목표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동맹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글로벌경영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은 주로 삼성전자 등 기업 본연의 비즈니스에 충실하기 위한 <경영>과 관련된 키워드 주류였고, 또한 이해관계자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5에 나타난 SK 및 LG그룹 소속 상장기업 CEO의 메시지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LG그룹은 주력기업인 LG화학의 화학부문,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부문 등 비즈니스 영역과 관련된 <탄소감축> 등 친환경 관련 키워드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ESG>도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SK그룹은 주력기업인 SK하이닉스의 비즈니스 관련한 〈반도체〉와 그룹 전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사회적가치〉 등 ESG 관련 키워드에 집중되고 있다.

표6에 나타난 현대중공업 및 두산그룹 소속 상장기업 CEO의 메시지 키워드를 비교해 보면, 양 그룹의 주력기업이 중공업 등 중후 장대한 비즈니스인 점 때문에 CEO의 키워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력기업(중공업)의 특성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양 그룹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CJ그룹(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소속 CEO 메시지의 키워드는 주력기업의 업종 특성상 〈물류〉 관련 키워드가 집중되어 있으며, 또한 P2P(Peer to Peer) 플랫폼인 점 때문에 〈소비자〉 등〈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집중이 높은 편이다. 또한, 포스코그룹(포스코,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건설(비상장))은 〈기업시민〉, 〈ESG〉 등에 대한 키워드가 집중되고 있다.

주요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나타난 CEO 메시지를 통해, 향후 각 상장기업의 ESG 등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중점 이슈 사항을 유추하거나 향후 로드맵을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2025년 이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 후 의무 공시해야 한다. 일정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현재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배구조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3가지 유형의 보고서를 통해 비재무정보에 대한 활용과 함께 공시 데이터의 ESG 위상 등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이 과거보다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4 이하의 CEO 메시지 분석에서, 1) 특성값은 특성추출에 기반해 계산된 중요도의 값이며, 2) 특성추출은 보고서 텍스트 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출한 키워드이다. 3) 중요도 판단을 위해서는 텍스트 랭크(Text-rank) 알고리즘이 활용되었다.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은 Graph-based ranking model의 일종으로, 단어 간 연결망을 그려 중심이 되는 단어를 찾는 알고리즘이다. 특정 문서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들의 연결망을 그리고, 그 연결망에서 다른 단어와 많이 연결될수록 중요한 단어로 판단한다. 전체 그래프의 정보를 재귀적으로 계산하여 정점의 중요도를 결정한다.

한편 빈도수 비중이란, 추출한 모든 키워드에서 해당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모든 키워드의 빈도수의 총합을 해당 키워드의 빈도수로 나누어 100을 곱해 구한 값이다.

*자료: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BIGKinds

표7. 삼성 및 현대차 그룹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키워드분석

(단위: 건, %)

순위	삼성그룹 (11개 社)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경영 활동	0.01021	5	0.15
2	경영 환경	0.01014	3	0.09
3	ESG 경영	0.009	6	0.18
4	이해관계자	0.00882	41	1.232
5	사업 활동	0.00794	1	0.03
6	ESG 활동	0.00786	2	0.06
7	글로벌 ESG	0.00785	1	0.03
8	ESG	0.00784	34	1.022
9	기업 경영	0.00742	1	0.03

순위	현대차그룹 (9개 社)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글로벌 기업	0.01096	4	0.097
2	글로벌 사업	0.01021	2	0.048
3	이해관계자	0.01018	45	1.091
4	글로벌 경영	0.00924	2	0.048
5	글로벌 물류	0.00822	1	0.024
6	글로벌 경영 환경	0.00816	1	0.024
7	글로벌 시장	0.00815	2	0.048
8	경영 환경	0.00793	2	0.048
9	기업 경영	0.00787	1	0.024

10	글로벌 기업	0.00712	5	0.15
11	사업 확대	0.00694	1	0.03
12	ESG 책임 경영	0.00675	1	0.03
13	미래 성장	0.00629	2	0.06
14	지속 성장	0.00608	2	0.06
15	ESG 책임	0.00568	1	0.03

자료: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주: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중공업,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물산 등 11개사 기준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트모에 등 9개사 기준

10	미래 사업	0.00767	1	0.024
11	글로벌 시장 환경	0.00758	1	0.024
12	미래 성장 사업	0.00745	1	0.024
13	미래 시장	0.0071	1	0.024
14	미래 성장	0.0069	2	0.048
15	물류 사업	0.00679	2	0.048

표8. SK 및 LG그룹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키워드분석

(단위: 건, %)

순위	SK그룹 (10개 사)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성장 사업	0.00998	1	0.029
2	이해관계자	0.00895	34	0.986
3	반도체 사업	0.00636	1	0.029
4	친환경 사업	0.00612	2	0.058
5	ESG 경영	0.00604	13	0.377
6	기업 경영	0.00604	2	0.058
7	기업 환경	0.00561	1	0.029
8	코로나19	0.00561	17	0.493
9	미래 성장	0.00539	2	0.058
10	반도체 회사	0.00532	1	0.029
11	ESG	0.00519	24	0.696
12	미래 이해관계자	0.00517	1	0.029
13	사회적 가치	0.00504	13	0.377
14	반도체	0.00479	10	0.290
15	경영 역량	0.00474	1	0.029

자료: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주: SK그룹은 (주)SK, SK가스, SK머티리얼즈, SK바이오팜, SK케미칼, SK하이닉스, SKC, SK이노베이션, SK셀레늄, SK네트웍스 등 10개사 기준

LG그룹은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디스플레이 등 5개사 기준

순위	LG그룹 (5개 사)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고객 가치	0.011	1	0.059
2	ESG	0.00856	16	0.945
3	ESG 경영	0.00792	5	0.295
4	이해관계자	0.00769	14	0.826
5	미래 사업	0.00744	1	0.059
6	지속 성장	0.0073	2	0.118
7	글로벌 환경	0.00649	2	0.118
8	지속 강화	0.00603	1	0.059
9	사업 성과	0.00596	1	0.059
10	탄소 감축 사회	0.00563	1	0.059
11	지속 확대	0.00551	1	0.059
12	탄소 감축	0.00541	10	0.59
13	친환경 경영	0.00509	2	0.118
14	친환경 사업	0.00503	1	0.059
15	협력사	0.00444	7	0.413

표9. 현대중공업 및 두산 그룹 2020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키워드분석

(단위: 건, %)

순위	현대중공업그룹 (4개 사)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친환경	0.00991	5	0.641
2	시장 환경	0.00858	1	0.128
3	ESG 경영	0.00727	4	0.513
4	사회적 가치	0.00691	4	0.513
5	현대건설기계	0.0069	5	0.641
6	ESG	0.00625	5	0.641
7	가치 창출	0.00624	2	0.256
8	현대에너지솔루션	0.0062	5	0.641
9	기업 활동	0.00601	1	0.128
10	조선	0.00591	6	0.769
11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	0.00565	1	0.128
12	활동 강화	0.00547	1	0.128
13	미래 성장	0.00536	1	0.128
14	사업 환경	0.0053	2	0.256
15	신사업 추진	0.00525	2	0.256

자료: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주: 자료: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엔지니어링시스템 등 4개사 기준, 두산그룹은 (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3개사 기준

2) 4대 금융그룹 주주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CEO 메시지

; 과거 <디지털>, <고객중심>에서 최근<탈석탄>,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로 변화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비금융 상장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4대 금융지주사의 2020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나타난 CEO 메시지의 키워드는 유사한 수준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표7에 의하면, 주요 4대 금융지주사의 지난 2017년 이후 최근 2020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CEO 메시지 키워드 변화 추이가 ESG 위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7년 이후 2018년까지 동 보고서의 CEO 키워드는 주로 <디지털>을 중심으로 <고객중심>등의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관련된 키워드가 주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 발간된 201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ESG 관련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금융지주에서 <탈석탄 금융 선언>, <ESG채권> 등 <기후변화> 관련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었다.

2021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2020년 4대 금융지주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ESG>, <이해관계자> 등의 키워드가 집중되고 있다. 이는 2021년초 이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금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는데 기인하고 있다. 특히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트렌드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10. 2020년 4대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_4대 금융지주의 시계열

순위	4대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KB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하나금융)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1	ESG	친환경 금융	디지털 금융	디지털 금융
2	ESG 금융	ESG 경영	신한	사회 변화
3	그룹 ESG	책임 경영	우리금융그룹	고객 중심
4	ESG 경영	ESG	고객 중심	그룹 차원
5	ESG 전환	ESG 전략	신한 디지털	성장 전략
6	이해관계자	금융그룹	고객 중심 경영	신한
7	금융 지원	기후변화 그룹	경영 성과	경영 성과
8	우리금융	상생 경영	디지털 혁신	글로벌 비즈니스
9	ESG 전략	글로벌 금융그룹	그룹 차원	신한금융그룹
10	ESG 보고서	2019년 금융그룹	금융 상품	창조적 금융
11	하나금융그룹	친환경 경영	글로벌 리딩	한국 금융
12	ESG 추진	이해관계자	그룹 가치	4차 산업혁명 시대
13	기후변화	사회적 가치	사회 발전	그룹 가치
14	그룹 내부	사회적 책임	디지털 금융 리더	디지털 혁신
15	그룹 ESG 중장기 전략	친환경 금융 생태계	사회적 책임 확대	디지털 선도

자료: 자료: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표11. 2020년 4대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_KB/신한 금융지주

(단위: 건, %)

순위	KB금융그룹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이해관계자	0.02676	4	2.74
2	KB금융그룹	0.01786	5	3.425
3	기업 주변	0.01522	1	0.685
4	보고서	0.01436	1	0.685
5	특정 국가	0.01239	1	0.685
6	지속가능보고서	0.0123	1	0.685
7	ESG 열풍	0.01155	1	0.685
8	아젠다	0.01147	1	0.685
9	지속가능경영	0.01147	1	0.685
10	기후변화	0.01144	1	0.685

자료: 각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순위	신한금융그룹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ESG	0.0399	13	7.027
2	신한	0.02744	11	5.946
3	ESG 리스크	0.01958	1	0.541
4	신한은행 ESG	0.01946	1	0.541
5	ESG 전환	0.01939	1	0.541
6	신한은행	0.01442	3	1.622
7	ESG 보고서	0.01439	1	0.541
8	ESG 프로포즈	0.01434	1	0.541
9	ESG 등대	0.01409	1	0.541
10	지속가능	0.01292	3	1.622

표12. 2020년 4대 금융지주 지속가능경영보고서_우리/하나 금융지주

(단위: 건, %)

순위	우리금융그룹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우리금융	0.01995	14	2.783
2	ESG	0.01658	19	3.777
3	기후변화	0.0116	4	0.795
4	그룹 내부	0.01087	3	0.596
5	ESG 비전	0.00938	2	0.398
6	우리금융그룹	0.00871	4	0.795
7	그룹 차원	0.00864	1	0.199
8	ESG경영	0.0084	9	1.789
9	그룹내부 탄소배출량	0.0081	1	0.199
10	ESG경영 활동	0.00775	1	0.199

자료: 자료: 각 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순위	하나금융그룹			
	키워드	특성값	빈도수	빈도수 비중
1	ESG 금융	0.02418	1	0.288
2	ESG	0.02396	9	2.594
3	하나금융그룹	0.01951	7	2.017
4	그룹 ESG	0.01907	1	0.288
5	ESG 전략	0.01517	1	0.288
6	ESG 경영	0.015	2	0.576
7	ESG 추진	0.01288	1	0.288
8	금융 지원	0.01214	1	0.288
9	금융 서비스	0.01087	2	0.576
10	이해관계자	0.01062	3	0.865

III. 제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의무 발간을 고려하면, ESG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작년 대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재무적정보의 공개는 기존 재무정보 공개와 더불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아직은 자율공시인 점 때문에 주로 기업의 대내·외 홍보 차원에서 그동안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져 왔던 점도 있었다. 그러나 향후 2025년 이후에는 일정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게 발간이 의무화되는 등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시장의 외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이 의무 공시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며, 보고서가 상장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등 책임투자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ESG 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전망이다.

Compliance Notice

〈Issue 보고서〉는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리포트로 단순 참고용으로 제공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은 특정한 투자상담, 권유, 또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당 연구소는 본 리포트에서 제공된 분석, 전망을 포함한 모든 내용에 관하여 그 정확성 또는 예측의 실현여부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본 보고서를 분쟁에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라도 당 연구소의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